

<p>There is something in all of us that wants to see our names preserved for posterity, isn't there? That is why it is especially satisfying to get your name on an honour board of some kind, perhaps at your school, or sporting club, or community organization. That is why people carve their names into some rock or stone – hoping that it will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to see. Many people skip over Romans 16, thinking that it is nothing but a list of dead, anonymous Christians. At first glance, Paul's postscript to Romans looks about as interesting as a page from a phone book. However, I believe that it is one of the most fascinating chapters in Romans because it includes the names of many of Paul's close friends (thirty-three men and women), names that have been carved into the letter and preserved for the past 2,000 years. Though Paul had not yet visited Rome, he had personal connections to quite a number of people there. We tend to think of those ancient days as a time of limited travel – and it is true that it took weeks to reach places we can now fly to in an hour or so. But many people did travel extensively, and this chapter bears witness to that fact.</p>	<p>우리 모두에게는 후세에 보존되어진 우리의 이름을 보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아마도 여러분의 학교, 스포츠 클럽 또는 지역 사회 단체 등의 몇몇 종류의 명예의 전당에 오름에 특히나 만족스러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바위나 돌에 새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 장을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죽은, 익명의 크리스천들의 나열로 간주하며 묵과합니다. 언뜻 보기에, 로마인들에 대한 바울의 추신은 전화번호부의 한 페이지처럼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이 편지에 새겨져, 지난 2000 년 동안 보존되어진 바울의 많은 친한 친구들의 이름(32 명의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로마서의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장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꽤 많은 수의 그곳의 사람들과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대 시대를 한정된 여행의 시기로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한 시간 정도면 날아갈 수 있는 곳들이 당시에는 몇 주가 걸렸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폭넓게 여행했었고, 이 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p>
<p>The first person Paul mentions is Phoebe. Who is Phoebe? First, she is commended to the church in Rome, which probably means she was the one who brought Paul's letter to the church in Rome. Nothing is known of this woman apart from this passage, but she must have been a Gentile convert since she had a name which had come from pagan mythology. Paul calls her "our sister.....and a servant of the church in Cenchrea", which was the port town nine miles east of Corinth. The church in Cenchrea had no doubt been planted from Corinth. Phoebe was a servant or deacon in the church in Cenchrea. The fact that she was a servant or deacon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she held an office in the church. Rather, it means that she had a ministry of servanthood within the church. Clearly she seems to be a woman of importance and usefulness in the church. Indeed, she had been "a great help to many people", including Paul. Evidently she was a woman of business or independent means who had been using her skills and wealth to support the church and help many people, possibly active in the relief of the poor and needy. She very likely was travelling to Rome on other business.</p>	<p>바울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뵈뵈입니다. 뵈뵈는 누구입니까? 먼저, 그녀는 로마 교회에 추천되어졌으며, 아마도 이는 이는 그녀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가져왔던 사람이란 의미일 듯 싶습니다. 이 구절을 제외하고 그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만, 그녀가 이교도 신화로부터 비롯된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개종한 이방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우리의 자매...그리고 고린도의 동쪽으로 9 마일 떨어진 항구도시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리잡았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거나 집사였습니다. 그녀가 일꾼이거나 집사였다는 사실이 그녀가 반드시 교회의 관직을 맡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이는 그녀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녀는 확실히 교회의 중요하고 유능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교회를 후원하고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 그녀의 능력과 부를 사용했던, 아마도 빈민 구제에 적극적이었던 사업 또는 독립적 재력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업무로 로마를 여행했었을 것 같습니다.</p>
<p>Phoebe is the first of many women listed in this postscript. Women occupy a prominent place in the New Testament. Romans 16 affirms the fact that Christianity has done more to elevate the status and dignity of women than any other movement or social force in history. From verse 3, Paul embarks on a list of greeting which is without equal in his other letters and would open many doors for Phoebe when she arrived in Rome.</p>	<p>뵈뵈는 이 추신에 나열된 많은 여성들의 첫번째 여성입니다. 신약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마서 16 장은 기독교가 어떤 다른 운동 또는 역사속의 사회적 영향력 보다도 여성들의 지위와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였다는 사실을 단언합니다. 3 절에서부터, 바울은 뵈뵈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위한 많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의 다른 편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안 인사의 명단 작성에 착수합니다.</p>

<p>He begins by greeting a well-known husband-and-wife ministry team, Priscilla and Aquila. These two eminent believers were first mentioned by Luke in his account of Paul's first visit to Corinth: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who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the Jews to leave Rome" (Acts 18: 2). In most cases where they are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order is reversed and the wife is mentioned before her husband (as here in Romans 16: 3). She may have stood on a higher social level than her husband or she may have been more active in church affairs. Doubtless she had been a Hellenistic Jew like her husband. Perhaps they were already believers when they came to Corinth after they were expelled from Rome as a result of the edict of Claudius against the Jews. They spent 18 months with Paul in Corinth, and then accompanied him to Ephesus. They were still there, with a church in their house, at the time when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was written. They were now back in Rome, but were in Ephesus again when Paul was in prison and on trial for his life in Rome. The long and close friendship between them and Paul owed its strength to the fact that they were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v. 3). What that meant was perhaps never better illustrated than in the way they befriended Apollos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Acts 18: 24-26). Their staunch friendship for Paul had proved itself at the risk of their own lives – "They risked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v. 4). This may have been while they were in Corinth at the time when the Jews dragged Paul before Gallio's judgment-seat (Acts 18: 12) or it may have been while they were in Ephesus at the time when a serious disturbance broke out under Demetrius, the silversmith (Acts 19: 28-31). While the details are now unknown, Paul's words make it clear that they had acted with great courage. He could only record his thanks in a glowing testimony – he would never forget what they had done</p>	<p>그는 잘 알려진 부부 사역팀인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문안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저명한 믿는자들은 바울의 첫 고린도 방문에 대한 누가의 설명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행 18:2). 신약에서 그들에 대해 언급된 대부분의 경우, 그 어순은 뒤바뀌어 있으며, 아내가 그녀의 남편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롬 16:3 에서와 같이).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거나, 또는 교회 일에 있어서 그녀가 좀 더 활동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녀는 그녀의 남편처럼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반대하는 칙령의 결과로 로마에서 추방되어져, 그들이 고린도로 왔을 때, 아마도 그들은 이미 믿는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18 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었고, 에베소로 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고린도인을 위한 바울의 첫 서신이 쓰여졌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와 로마에서 재판중에 있을 때는, 다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바울 사이의 오래되고 친밀한 우정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3 절)이었다는 사실, 그 강력함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들이 아볼로에게 친구가 되어준 방법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행 18:24-26) 보다 아마도 더 잘 묘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우정은 그들의 목숨이 위협에 처했을 때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4 절). 이는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 갈리오의 심판대에 세울 때에(행 18:12) 또는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하는 은세공인으로 인한 심각한 소동이 발생하였던 때(행 19:28-31)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울의 말은 그들이 큰 용기로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극찬의 간증에 단지 그의 감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p>
<p>Here we have two remarkable women mentioned in the first few verses of Paul's postscript – Phoebe and Priscilla, one on her way to Rome, and the other in Rome. Phoebe was single, Priscilla was married. Phoebe was a Gentile, Priscilla was a Jew. Phoebe held an official position in a particular congregation. Priscilla was an itinerant gospel worker. Both were friends and associates of Paul, both loved the Lord Jesus and the Gospel. Paul goes on to mention other women as well in his list of greetings. There was Mary, an anonymous servant who had the spiritual gift of helps. She could not teach or preach or evangelize, but she was a hard worker.</p>	<p>바울의 추신의 처음 몇 구절에 두 명의 주목할 만한 여성이 있습니다. - 뵈뵈와 브리스가, 한 여성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고, 다른 한 여성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뵈뵈는 미혼이었고, 브리스가는 기혼이었습니다. 뵈뵈는 이방인이었고, 브리스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뵈뵈는 특정한 회중의 공식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는 떠돌아 다니는 복음 전도사였습니다. 둘 다 바울의 친구이며 동료였으며, 주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의 문안 인사의 명단에 다른 여성을 추가로 언급합니다. 이는 도움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던 익명의 일꾼인 마리아입니다.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전도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자였습니다.</p>

<p>Paul is careful to affirm those who exercise the gift of helps. There were Tryphena and Tryphosa, perhaps slave girls, who worked hard in the Lord. There was Persis, a dear friend of Paul's again with the gift of helps or serving. There was the mother of Rufus who had been a mother to Paul as well. And there were Julia and the sister of Nereus. That made up nine in all. Was Junias, a relative of Paul, also a woman? Early church fathers took the name to be Junia (not Junias) and hence a woman. So Andronicus and Junia may well have been husband and wife, relatives of Paul, "in Christ before he was", which tells us that they were among the earliest believers in the first-century church. They were such dedicated Christians that even the apostles in Jerusalem held them in high regard (they were "of note among the apostles"). Perhaps Priscilla and Junia were the only married women in the list of those who are named by Paul. What, then, of those who were single? The fact that they were named in this list shows that they held an honourable place not only in Paul's heart but also in the life of the church.</p>	<p>바울은 조심스럽게 도움의 은사를 행하는 이들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여자 노예였던,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움과 섬김의 은사를 지닌,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인 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루포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 명이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유니아 또한 여성이었을까요? 초기 교회 목사들은 유니아(Junias)가 아닌 유니아(Junia)라는 이름으로 기록했으며, 이는(Junia)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친척이며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안에 있던", 1 세기 교회의 초창기 교인들 가운데 있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부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 깊이 존경했던, 아주 헌신적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언급된 명단에서, 아마도 브리스가와 유니아만이 기혼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미혼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름이 이 명단에 오른 사실은 단지 바울의 마음속 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한 그들이 영광스럽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Mention of the households of Aristobulus and Narcissus seems to suggest that some of them were slaves. The "household of Narcissus" is probably a reference to the servants of the former slave, Narcissus, who became the personal secretary of Emperor Claudius. Narcissus gained wealth and prestige in that position. When Nero succeeded Claudius, the new emperor forced Narcissus to commit suicide. Though Narcissus was not a Christian, there were Christians among his servants, and it is the Christian servants of Narcissus that Paul greets. From this brief statement, we can see that God had established a Christian witness in the very corridors of Roman power. But slave or free, Jew or Gentile, male or female, single or married, they we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 28). Such a roll-call of those who were among the saints in Rome has a moving appeal for us who look back from such a great distance. We hear their names and think of them as now part of that great cloud of heavenly witnesses, the writer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speaks of in chapters 11 and 12. And we are reminded that these were the men and women who, only a matter of years after Paul wrote Romans, would bear the brunt of Nero's persecution of Christians.</p>	<p>아리스도볼로와 나깃수 권속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일부가 노예였음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나깃수의 권속"은 아마도 일전에 노예였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가 되었던 나깃수의 하인들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나깃수는 이 지위에서 부와 명망을 얻었습니다. 네로가 글라우디오 뒤를 이었을 때, 새로운 황제는 나깃수에게 자살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나깃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나, 그의 하인들 중에 크리스천이 있었으며, 이들이 바울이 문안하는 나깃수의 크리스천 하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간략한 서술로부터, 하나님은 로마 권세의 회랑 가운데에 기독교적 증언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 또는 자유인, 유대인 또는 이방인, 남자와 여자, 미혼과 기혼,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 입니다(갈 3:28). 로마의 성자들 사이에 있던 이들의 그러한 호명은 상당한 시간 후에 뒤돌아보는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호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듣고 히브리서 11 장과 12 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많은 천상의 증인들의 일부로서 그들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후의 시기가 다를 뿐, 우리는 이 모든 남자와 여자가 네로의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를 정면으로 맞섰던 이들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p>
<p>Finally, Paul concludes in v. 16b with a general greeting from all the churches that he has visited or helped plant in Palestine, Asia Minor, Greece and Macedonia. This is a reminder, isn't it, that churches, local congregations, are really <u>one</u> church, <u>one</u> body of Christ, unified in love and in the Holy Spirit.</p>	<p>마지막으로, 바울은 16b 절을 그가 방문했거나 뿌리내리기를 도왔던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모든 교회로부터의 전반적인 문안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교회들, 지역 회중들이 진실로 하나의 교회이며, 사랑과 성령으로 통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p>

<p>As we come to vv. 17-19, Paul again urges hi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bout “divisions and.....obstacles”. But now, unlike in chapters 14 and 15, he is warning about those who would actively “cause” division – those who “are not serving our Lord Christ, but their own appetites”. It seems that these people are not already teaching in the Roman church, but Paul knows that it is a dangerous possibility that they will start to appear, as they had in the Galatian churches. So he warns his readers to “keep away from them”. How can they be recognized? Paul gives us two ways here. First, what they do is “contrary to the teaching you have learned”. People may be eloquent and flattering but measure what they say against the gospel. And second, what they aim to do is to serve themselves, not Christ. However, fine-sounding a teacher is, seek to discern whether they are in it for themselves, or to give themselves to Christ. How can they be stopped? Paul tells the Roman Christians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what is evil” (v. 19). They are a church who wish to be obedient, but they must not be naïve. They need to keep learning more about how to do “good”, to love and obey God. And they need resolutely to refuse to have anything to do with “evil”, with anything that is not in accord with the gospel. There must be no complacency, and no compromise.</p>	<p>17-19 절에서 보면,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의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분쟁과 장애물”에 대해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 장, 15 장과 같지 않게, 그는 적극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듯 보이나,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위험한 가능성에 대해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들은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르는 것”들을 행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유창하고 아첨스러울지 모르지만, 복음을 거슬러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두번째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정통 가르침은 그들이 스스로를 섬기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는지를 분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멈추게 할까요? 바울은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19 절). 그들은 순종하기를 바라는 교회이나, 어리숙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선함”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지에 대한 배움을 계속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은 굳은 결의로 “악함”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안주함과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p>
<p>Paul finishes this short section with a great encouragement in v. 20: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Satan is the great liar, and one of his weapons is divisive, self-absorbed teaching. But he has been, is being and will be defeated. Paul’s use of the word “crush” takes us back to God’s promise after Adam and Eve had sinned in the Garden of Eden and were judged by being cast out of it. God said, then, to the serpent, Satan, that a man would be born who “will crush your head” (Genesis 3: 15). Jesus is the serpent-crusher, first at the cross and finally when he returns at the end of time. But his people are part of that victory. Satan suffers defeat each time someone puts their faith in Christ, receives Christ’s righteousness and escapes hell. Satan suffers defeat each time a Christian obeys their Father joyfully. Satan suffers defeat each time God’s people worship together in faith and unit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v. 20) is to be with us, working through us to defeat our great enemy.</p>	<p>바울은 이 짧은 부분을 20 절에서의 위대한 격려로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엄청난 거짓말쟁이이며, 그의 무기 중 하나는 분열을 초래하며 자신에게만 몰두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는 패하였고, 패하고 있으며, 그리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상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그 곳에서 내쫓겼던 때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되돌립니다. 하나님이 그 뱀, 즉 사탄에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5). 예수님은 처음으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끝으로는 마지막의 때에 다시 돌아오심으로 뱀을 상하게 하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이 승리의 한 부분입니다. 사탄은 누군가 그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들여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때마다 패배함에 고통받습니다. 사탄은 크리스천이 그의 아버지께 기쁨으로 순종할 때마다 패배함에 고통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하나됨으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패배함에 고통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20 절)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p>

<p>After briefly sending greetings from those he is with in vv. 21-23, Paul's final words in vv. 25-27 are reserved for God. Indeed, these final words were probably written in Paul's own hand. In these verses, he is looking back once more to chapter 1. His aim is to move his readers, including us, to give glory to God. How does he do this? By reminding us of the gospel – what it does and what it is.</p>	<p>21 절-23 절의 그와 함께 한 자들로부터 간략히 문안을 보낸 후, 25 절-27 절에서 바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두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마지막 말은 아마도 바울 스스로의 손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에서, 그는 1 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를 포함한 그의 독자들을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함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를 행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입니다.</p>
<p>What does the gospel do? Well, it is the way in which God "is able to establish you" (v. 25). Indeed, the Greek is stronger – it is the way in which God is powerful to establish you. Remember back in 1: 16, Paul spoke of the gospel a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The gospel is how God changes people and futures. When Paul speaks of being established, he means that we are on solid, stable ground. Have you ever tried to eat a meal or even have a cup of coffee at a table with a wobbly leg? It's annoying and frustrating, because the table keeps rocking. It is not established and stable. Christians who are not established are like that table – unstable, undependable, and wobbly. The gospel is not only the entry point into the Christian life – it is also the way we continue in, grow in and enjoy life with Christ. The gospel is designed to bring us to a place where we are secure and unshakable – so mature in our faith that we do not get frustrated by circumstances or question God's goodness every time things don't go our way. It is God himself who establishes us. We are to willingly cooperate with him in this process, but we are not ultimately responsible for our own maturity and stability. God took an idol worshipper named Abraham and established him as the father of our faith. He took a murderer and adulterer named David and established him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He took a hardened Pharisee, a persecutor of the church named Saul, and established him as Paul the apostle.</p>	<p>복음이 무엇을 행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25 절)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더욱 강한 의미의 그리스어로는 - 이것은 여러분을 확립하기에 강력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 장 16 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미래를 변화시키는가입니다. 바울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우리가 단단하고 견실한 땅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흔들거리는 탁자 위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탁자가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는 짜증나고 불만스럽습니다. 이는 확립되고 견실한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지 않은 크리스천은 견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고, 흔들리는 이 탁자와도 같습니다. 복음은 단지 기독교적 삶의 입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하고, 자라나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 머물도록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이나 상황에 의해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도록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기꺼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성숙함과 안정감에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취하시어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살인자이며 간통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마음이 강박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 불리웠던 교회 박해자를 사도 바울로 세우셨습니다.</p>
<p>God is able to establish the Roman Christians and Christians in the 21<sup>st</sup> century "by my gospel and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When God establishes his people, he does so by means of the truth of the gospel and the proclaiming of a person – Jesus Christ. The heart of the gospel is the revelation of Jesus himself. Jesus Christ is the central figure of all history, of all time, of all faith. Paul says that his revelation of Christ is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The ultimate test of any Christian message is: Does it proclaim "the mystery"? What is the mystery? It is none other than Jesus himself.</p>	<p>하나님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로마 크리스천과 21 세기의 크리스천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우실 때, 그는 복음의 진실된 의미와 한 사람 -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 스스로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모든 시대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중심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독교적 메시지의 최종적인 시험은 "이것이 "신비"를 선포하는가?"입니다. 신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그 자체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p>

<p>By means of his virgin birth, his holy and sinless life, his sacrifice upon the cross, his glorious resurrection and victory over death, and his gift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God has given Jesus to you and me. He lives his life through us. The radical, mysterious secret of authentic Christianity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 27). Do you know this mystery? Do you live it? If you do, you are living each day by faith in Christ. If you are filled with the indwelling Christ, then it makes no difference if you are a Jew or a Gentile. All divisions of class, gender, race, and ethnicity are obliterated by the mystery, because we are all one in Christ.</p>	<p>그의 동정녀 출생과 성스럽고 죄없는 삶, 십자가 상의 희생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은사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영위하십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철저하고 신비로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골 1:27).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를 따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계급, 성별, 인종, 그리고 민족성의 모든 구분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이 신비에 의해 지워졌습니다.</p>
<p>When you read the Old Testament, you see why this truth is called "the mystery". Down through the centuries before Jesus, you see that the wisest Jewish leaders, prophets and scribes puzzled over how God would tie together all the promises of the Old Testament. Then Jesus came, and the mystery began to unfold! He was the secret! He would tie all these promises together in himself. All the great themes of the Old Testament converged on him. This mystery was hidden for centuries, but was revealed in Jesus by the command of God.</p>	<p>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왜 이 진실이 "신비"로 불리워지는 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이전의 수세기를 거쳐, 가장 현명한 유대 지도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서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함께 묶으시는지에 대해 숙고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후,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묶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위대한 주제들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신비는 수세기 동안 감추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p>
<p>Paul's letter closes with a wonderful doxology: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through Jesus Christ! Amen". The same wisdom and power that spoke the universe into being now flows through us. We are channels for the gifts of his Spirit. Through him, we can achieve great things for God. God is at work in us – that is the mystery! He gives his glory to us, and so we give glory to him: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and ever through his Son, Jesus the Lord!</p>	<p>바울의 편지는 아주 멋진 영광의 찬가로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우주에 선포되었던 동일한 지혜와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의 선물을 위한 통로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의 아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p>

Amen and amen!